

20세기를 전후한 교회건축의 근대적 변천양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spects of Modern Church Architecture Changes in 20th Century

조경수* / Cho, Kyung-Soo

윤도근** / Yoon, Do-Keu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reveal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modern church architecture in 20th century.

In order to do that, neo-gothic architecture which starts in the point of view of ethic in the 19th century will be discussed first. Then the relations between Arts and Crafts Movement and church architecture which is the beginning of modern architecture movement will be revealed. After that, the purpose of Secession's church architecture which tried to separate from old architecture and the formation of background of localistic church architecture which is one of the modern church architecture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ose discussions, the research is concluded the several characteristics of church architecture which makes it modern architecture.

The research is focused to the portions which is related to the church architectures among the architectural conditions so complicated as to be easily confused. And also it is focused the architect those who should be mentioned in the same context and their works.

키워드 : 교회건축, 신교도주의, 합리주의, 지역주의

1. 서론

인간생활을 대변하는 건축 중에서 교회건축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로마시대 이후 교회건축은 각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으로 독창적이고 근본적인 공간개념을 창조하고 신앙생활을 표현하여 왔다.

그러나 중세를 유럽의 지적 암흑상태라고 생각하여 전개된 문예 부흥 운동은 예술, 사상, 그리고 문학의 분야에서 변혁을 일으켜 중세의 사상과 경직성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 속에서 확실한 이념적 내용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세기를 맞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17세기의 과학혁명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계몽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규범적 관심을 두었으며 진보, 이성, 과학을 자신의 모토로 내세우면서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과 비판을 감행함으로써 편견과 미신의 폐지, 지식의 확대에 근거한 자연지배 그리고 물질적 진보와 변형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상운

동이였다. 이러한 사상은 서양의 합리주의라는 거대한 정 신적 지주 를 탄생시켜 그 이후 모든 학문의 정신적 기반을 이루어 냈다.

기독교에서는 르네상스와 더불어 종교개혁이라는 커다란 혁명을 맞게 되고 이것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라는 분리를 가져왔으며 시민운동과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는 동안 구교는 정통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급급하였고 신교는 체계적이지 못한 신학의 흐름 속에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교리적인 혼돈 가운데 교회건축은 역사주의와 합리주의의 회오리 속에서 20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있던 다른 건축물들과는 달리 교회건축은 과거의 것, 특히 고딕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대건축으로써의 교회건축에 많은 방해 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¹⁾ 이러한 가운데 고딕 양식이 교회 건축에 특별히 적절한 양식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역사적, 지리학적, 건축적 근거가 없고 그것은 기독교의 잠재적인 범주 주성이라는 제한된 개념에 수반되는 현상일 뿐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²⁾ 당시에 발생되었던 근대의 건축 운동과 동시에 근대 건축으

* 정회원, 동원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 명예회장,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1) 심지어는 고딕을 추구하는 세력 안에서조차 고딕의 어떤 시기를 모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것은 교리적인 것과는 무관하였다.

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19세기 후반의 교회건축을 주도 하였던 신고딕주의 양식과 20세기초에 있었던 건축운동에 의해 변화 하게 되는 교회건축의 경향에 대해 논함으로써 교회건축이 과거의 양식에서 근대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근대의 혼란스러운 정도로 많은 건축적인 상황들 중에서 교회 건축에 상관된 부분만을 고찰하였고 많은 교회 건축가들이 존재하였지만 맥락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하는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2. 도덕성의 문제와 신고딕주의

1835년경 영국에서 퓨진(Augustus Welby Pugin, 1812-52)은 기독교 정신과 고딕이 동일하다는 건축적 이론과 실천을 전개하였다. 정열적이며 쾌활한 성품을 가진 카톨릭 개혁주의자였던 퓨진은 고딕의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려는 그의 저서 「기독교건축 즉, 첨두형 건축의 진실된 원리(The true Principle of Pointed or Christian Architecture, 1841)」에서 디자인에 대한 2대 법칙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 기능적 편리성(Convenience), 구조적 견고성(Construction), 타당성(Propriety)이 결합된 건물은 특색이 없는 건물임이 틀림없다. 둘째, 모든 장식은 건물을 지탱시키는데 필요한 구조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는 고딕건축의 형태를 표면 근제라는 외부적 개념에서뿐만 아니라 구조, 재료, 그리고 정직한 기교성의 기능적 요구에서 타당성을 추출하고있다.³⁾ 퓨진이 언급한 진실성은 고딕건축을 고도의 양식으로 승화시켜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간에 모든 건물의 형태에 적합한 양식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을 이용하여 퓨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중세의 형태로 건물을 짓는 것은 도덕적 의무였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중세의 건축가가 가장 정직한 일꾼이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중세 건축이 훌륭한 건축이기 때문에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일꾼이 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퓨진의 ‘고딕 부활(Gothic revival)’을 다루고있다.⁴⁾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도덕성’과 ‘정직’이라는 두 단어의 출현인데 이 두 단어는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초에 나타난 건축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룬 대다수 문헌들의 주제가 되었고 로버트 푸르노-조단(Robert Furneaux-Jordan)은 그의 저서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물(Victorian Architecture)」에서의 최종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퓨진 이후로 건축은 심미(taste)적인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로 바뀌었다.” 조단의 지적에서처럼 이것은 결국 건축이 미학적인 영역에서 윤리적인 영역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

대의 예술이나 건축의 본질을 도덕화하여 버리려는 분위기를 이끌어 냈고 특히, 교회 건축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퓨진과 그 이후의 러스킨은 고딕은 교회를 위한 유일한 도덕적 스타일이며 고딕적 스타일은 이교도의 문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고딕은 신을 위해서 건축하려는 욕구로부터 도출된



<그림 1> W. 버터필드, All Saints 교회, 1859

유일한 스타일로 여겨졌다. 퓨진에게 있어서 고딕의 수직성은 ‘부활의 상징’이었고 다른 어떤 스타일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영국에서의 카톨릭으로부터의 해방과 그에 따른 영국 국교회의 재평가 는 고딕의 기능성, 즉 평면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의 선봉자는 버터 필드(William Butterfield)이었다. 그러나 변형된 고딕인 그의 모든 성자의 교회(All Saint, London, 1849-59, 그림1)는 다소 불명확한 형태로 인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또한 카톨릭에 대한 영국 국교회의 견제로 퓨진의 고딕 예찬은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논의된 양식과 도덕성의 논쟁이 영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괴테는 쾰른 성당을 보고 상당한 감명을 받으며 건축의 서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중세의 열정을 이해할 수 없었고 고대 세계를 찬양하는 빙켈만(Wincklemann)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싱켈(Schinkel)은 고딕을 영성과 영감의 언어로써 찬양했으나 그 또한 확고한 네오 고전주의자의 신념을 가졌다. 반면에 헤겔(Hegel)은 고딕과 낭만주의의 건축적 형태가 기독교 정신의 조화와 더불어 기독교 예배에 가장 적합한 양식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쇼펜하우어(Schopenhauer)는 신고전주의(neo-classicism)를 탁월한 건축적 용어로 옹호했으며 많은 고딕 계획들을 기독교의 죽은 시체를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보았다. 19세기 건축 이론의 거장 고트프리트 켐퍼(Gottfried Semper)는 건설과 재료, 색깔의 상징에 심취해 있었고 독일 문화에 영향을 미친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보수주의와 관련된 독일의 단체들 때문에 신고딕을 크게 비난하였다.⁵⁾

독일어권 나라들에서 교회 건축에 대한 높은 수준의 건축적 논쟁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19세기 동안 교회 건축에서의 혁신과 지대한

2) Talbot Hamlin, Forms and Functions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Vol. 3,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p.335

3) 배형민, 종교 건축 그리고 사회주의, 건축과 환경 8804, pp.99-109

4) Edwin Heathcote, Church Builder, AD ACADEMY, 1997, p.2

5) Edwin Heathcote, op. cit., p.10

영향을 미친 나라는 프랑스이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꼽추」는 성당을 소외의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위고는 도시의 건축과 성당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보존에 대한 태도를 논의함과 동시에 고딕을 프랑스의 자유와 성취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19세기의 위대한 건축이론가인 비올레 르 뒤크(Engene Viollet le Duc)은 고딕은 기술의 축복이며, 근대의 정신처럼 유연하고 자유롭고 탐구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고딕 건축을 근대의 합리주의에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저서인 「프랑스 고딕건축 백과사전(Dictionnaire raisonne de l'architecture francaise, 1854-68)」은 그의 고딕 건축에 대한 관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서 그의 합리적 이론들과 기술에 대한 신념은 근대 건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양식적 장식은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서 논의되었고 그러한 논의는 모더니즘 성장의 직접적인 자극제가 되었으며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사용은 건축의 근본적인 변화에 자극이 되었다. 루이 오귀스트 보이레(Louis-Auguste Boileau)는 철재 기둥과 볼팅 리브를 사용하여 파리에서 철재 교회(St Eugene 교회, 1854-5)를 세웠는데 이것은 중세의 건축가들이 선망했던 고딕 구조의 가벼움과 날렵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교회는 파리의 빈민 지역에 있었으며 철재의 사용은 사실은 이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철재가 교회 건축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시각적으로 사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합리주의가 신고딕주의 교회 건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적용이 세기말까지 유행하였다.⁶⁾

프랑스에서 이러한 진행은 두 교회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Zacharie Astruc이 설계한 Notre-Dame-du-Travail교회(파리, 1899-1901)이다. 철구조로 된 이 교회는 강하고 가벼운 외부를 가지고 있고 대범하고 표현적이며 장식이 없는 명확한 구조로 인하여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부상하고 있을 때,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또 다른 파리의 교회가 진행 중이었다.

구조적 변화는 철에서 콘크리트로 전환되었고 파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건물은 비올레 르 뒤크의 제자 Anatole de Baudot이 설계한 성 장 몽마르트 교회(St Jean de Montmartre, 1894-1904)였다. 그것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첫 번째 건물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콘크리트 구조를 대담하게 드러내는 첫 번째 건물이라는 점에서 세기를 여는 건물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런데 이 교회 건축은 신고딕주의 건축보다는 20세기의 아르누보 작품에 더 가까운 느낌을 준다. 첨두 아치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있기는 하나 너무 둥근 아치이고 건축 언어는 양식을 표현하기보다는 구조를 더 표현하고 있다. 구조는 비올레 르 뒤크의 고딕 원칙에 충실하였고 새로운 구조 기술의 사용 역시 그의 이상에 동조하는 것이었다.⁷⁾ Francois Hennebique가 파리에서 콘크리트구조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반면 교회 건축의 이러한 발전을 근대 건축의 결론으로 이끈

것은 20세기 들어서의 페레(August Perret)이었다.⁸⁾

전환기의 유럽은 양식으로 흘러 넘쳤다. 교회건축의 주류격인 고딕, 신고전주의, 후기 르네상스 양식은 오히려 세속적인 건물들이 전용하였고 과거와 같은 화려한 발전은 드물었다. 이것은 교회건축이 사회상황과 그에 따른 신학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디테일과 스타일의 적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혼란스럽지 않고 순수한 고딕은 보들리(G F Bodley)의 제자 니니안 컴퍼(Ninian Comper)에 의해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성 마리의 교회(St Mary's, Wellingborough, 그림 2)는 1950년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그림 2> 니니안 컴퍼, 성 마리의 교회

참가작이 모두 고딕 양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공모전에서 22세의 Scott⁹⁾이 당선되었고 노출되고 꾸밈없는 자유로운 고딕의 강한 구성을 지닌 그의 교회 건축은 그가 죽은 1960년까지 발전하여 완성되었다. 그의 건물은 1978년에 완성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완전히 돌로 지어진 마지막 교회일 것이며 고딕의 비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후반의 신고딕주의 양식은 그 자체로서의 세력은 약해졌으나 예술 공예운동과 혼합되어 지역적인 디테일과 더불어 유럽대륙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반면 프랑스에서는 고딕의 이상을 가지고 있던 비올레 르 뒤크의 영향과 함께 신기술과 구조를 적용시켜 페레의 르 랑시(Le Rancy)교회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3. 예술 공예 운동과 교회 건축

1850년 영국에서 국제공업박람회를 개최하였을 때 팩스톤(Joseph Paxton)의 수정궁의 출현은 공업시대 최초의 건축적 표현이었으며 공업시대가 건축에 미친 심오한 영향이 극적으로 입증된 것이었다. 그러나 수정궁에서 전시된 전시품들은 이러한 건축적 업적과는 대조적인 것으로써 대량 생산에 의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들이었다. 진통에 얽매어 있던 당시의 예술과 건축에서의 생각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과의 갈등으로 심화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갈등에서 발생한 예술 공예 운동은 그 이후의 예술과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예술과 유용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일치하였다.¹⁰⁾ 예술 공예 운동이 교회 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8)비토리오 M 랍프나니, 현대건축의 조류, 이호정 역, 태림문화사, 1990, pp.46-48

9)리버풀 성당을 설계한 스코트(Giles Gibert Scott)의 손자

10)Ludwig Hiberseimer, 근대건축의 역사, 윤재희·지연순 역, 세진사, 1996, pp.18-21

6)피터 콜린스,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이정수 역, 태림문화사, 1992, p.225

7)Edwin Heathcote, op. cit., p.12.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사상을 가진 건축가들이 교회 건축에 미친 영향은 새로운 것이었다.

그들 중 하나는 비올레 르 퓌의 강한 영향력을 받았으며, 비평가이자 건축가이고 교육가인 윌리엄 리처드 레서비(William Richard Lethaby, 1857-1931)를 들 수 있다. 그는 모리스와 러스킨으로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에 있었으며 모리스의 추종자들이 목가적이고 가족적인 전원적 건축에 빠져있었기에 역사주의의 혼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레서비는 동시대의 인물인 오스트리아의 아돌프 루스(Adolf Loos)처럼 장식의 제거와 건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글들은 근대주의자들의 선언을 예견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저서 「건축-건축 예술의 역사와 이론으로의 서문(Architecture and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Theory of the Art of Building)」에서 고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고딕 성당은 아마도 속도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획득해야하는 큰 화물선에 비교할 수 있다. 교회와 배는 둘 다 각 부분을 천천히 완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설계된다. 건축의 모든 것은 재료, 경제성과 더불어 관습, 정확함, 크기에 대해 작용하는 노력이다.”¹¹⁾ 또한 그는 그의



<그림 3> W. R. 레서비, All Saints 교회, 1902

또 다른 저서 「건축, 신화주의 그리고 신화(Architecture, Mysticism and Myth, 1891)」에서 고대 문명과 문화를 연구하고 일반적으로 문화 전반에 흐르는 공통된 주제로 분리하려고 했던 상징적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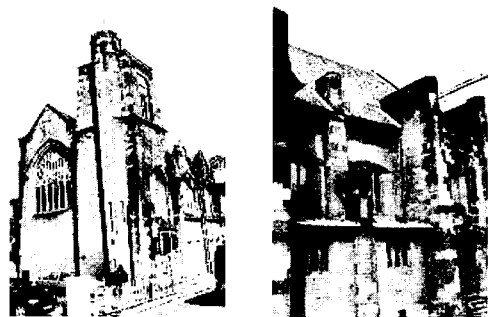
소의 유형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¹²⁾ 모든 건축 중에서 그의 관점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모든 성자의 교회(All Saints, Brockhampton, 1902, 그림 3) 인데 이 교회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에 세워졌으며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새로운 건축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레서비 건축의 최후 걸작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교회의 완공 후 그는 교육자로서만 헌신하였다. 고대 예배 사원의 단순성을 생각나게 하는 내부를 가진 이 교회는 그의 건축적 특색인 발전하여 가는 지역 전통, 새로운 건축 기술과 자신의 상징적인 편향들의 풍부한 통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다. 지역 전통에 관한 문제에서 그는 중세 교회의 강하고 짧은 돌로 된 구조 위에 초가 지붕의 형태를 표현했고 기술의 문제에서는 다수의 콘크리트 볼트로 구성된 미세한 곡선형의 삼각 아치를 나타냈으며 상징적인 문제들에서 그는 삼위 일체와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동쪽 끝에 위치한 세 개의 뾰족한 창문, 그루티기 모양의 탑 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레서비가 「건축, 신화주의 그리고 신화」에서 연구한 것들이었다.

11) 데이비드 왓킨, 윤리성과 건축, 장성수 역, 태림문화사, 1991, p.58

12) 윤재희 지연순 편저, 미술 공예운동과 건축, 세진사, 1995, p.125

레서비를 제외하고 근대 교회 건축으로의 변화에 주목할 만한 건축가는 에드워드 프라이어(Edward Prior)이다. 프라이어는 의도의 단순성과 명확성을 내포하는 두 교회¹³⁾를 설계하였는데 그의 디자인 의도는 고딕 부흥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예술 공예 운동 건축가들의 장식적이고 혼란스러운 구조들에 대조되는 것이다. 프라이어의 교회 건축은 그 자신의 합리적인 건축 신념과 영국 국교회의 새로운 정신에 대한 반응이었다.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는 영국의 전지역을 휩쓸었던 과도한 중세주의에 대한 회의와 자신들의 예배 의식과 의례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있었던 시기였다. 적어도 프라이어의 교회 건축에서는 양식과 장식에 관한 문제는 사라졌다고 보이며 뾰족한 형태의 아치들은 고딕에 대한 향수로 보여지고 있다. 프라이어는 그의 저서에서 “교회 건축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픽처레스크의 사소한 노력 따위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물은 기념비적이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⁴⁾. 실제로 그의 교회 건축은 위엄 있으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장식은 전혀 없고 영국 국교회의 교의에 따라 예배실은 제단에 명확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의 교회 건축은 그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고딕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그의 관심과 능력을 맞추고 있다. 그는 완만하게 가늘어지는 버트레스와 세련되고 근대화된 고딕 디테일을 그 자신의 교회 건축에 주입하려고 노력하였다.<그림 4> 맥킨토시 교회 건축의 근대성은 그 상부가 기울어져 있어서 돌출된 플라잉 버트레스를 포함하여 디테일이 전부 명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평범한 고딕교회에 비해 아르누보의 느낌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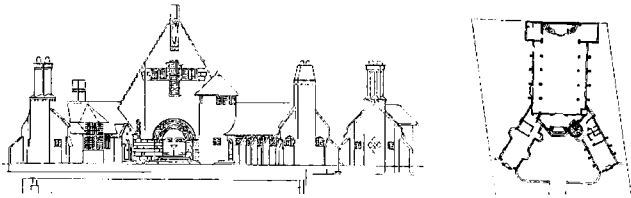


<그림 4> C. R. 맥킨토시, Queen's Cross 교회, 1899

교회 건축과 관련되어 예술 공예 운동의 사상을 가진 건축가들 중에서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건축가는 에드가 우드(Edgar Wood)이다. 그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가인데 그의 교회 건축 크리스천 사이언스 제일 교회(First Church of Christ Scientist, Manchester, 1903-1909, 그림 5)는 Y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평면으로 특징지어지는 건물은 예술 공예 운동의 건축가들에게 인기 있는 ‘나비’ 평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Y자형의

13) 신성한 삼위일체 교회(Holy Trinity, 1884-9)와 성 앤드류 교회(St. Andrew's, 1906-7)

14) Edwin Heathcote, op. cit.,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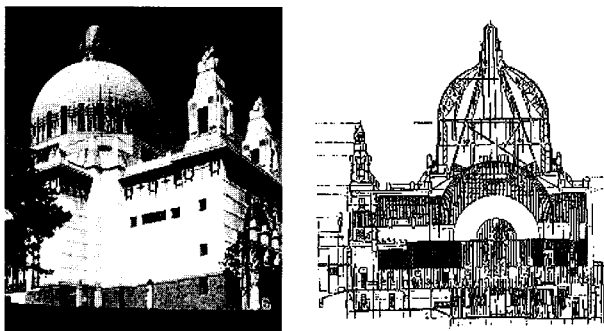


<그림 5> 에드가 우드, 크리스천 사이언스 제일 교회, 1909

돌출된 팔들은 외부세계를 둘러싸고 있으며 회중들을 바실리카 형태의 교회로 끌어들이는다. 건물에 설치된 베니스 풍의 창은 그 중심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반면 건물의 과장된 높은 박공 지붕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기능주의적인 단순성과 모던함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대담하고 조각적이며 강력한 고딕을 섞어 놓은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실험적 경향을 보였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4. 분리파의 교회 건축 의도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이후 가장 감명적인 교회 건축은 오토 바그너(Otto Wagner)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의 성 레오폴드 성당(Church of Leopold, Vienna, 1907, 그림 6)은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해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전례가 없는 이성과 과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시대이며 근본적인 개념들이 뒤바뀌고 시간과 공간, 신과 우주에 대한 인간의 위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나타난 시대이다. 바그너는 성 레오폴드 교회를 설계하



<그림 6> 오토 바그너, 성 레오폴드 성당, 1907

기 몇 년 전부터 차츰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고 모순될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신앙의 부족은 그가 이 시기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교회 건축이 근대 건축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교회 건축은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는 건축적 언어와 진지하게 검증되지 않은 기능에 속박되고 있었다.¹⁵⁾ 합리적인 교회 건축에 대해 제기된 이러한 문제의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바그너는 동시대 다른 건축가들보다도 20세기 대륙의 교회 건축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5)조경수, 현대 한국교회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1988, p.17

그러나 그의 교회 건축을 포함한 다른 작품을 분석해 보면 건축이라는 것이 레서비의 주장대로 획기적인 변화보다는 진화론적인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바그너의 이론을 살펴보면 그는 완전히 새롭고 다양한 건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건축을 고정된 어떤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창조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건축이란 항상 그 시대가 제공하는 수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 결과 그는 전통을 단순한 고고학이라고 부르면서 전통과 단절하였다. 그는 대도시의 요구사항과 공업의 업적이 해결되고 동화된다면 새로운 건축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믿었으며 우리 시대의 현실주의가 건축에 침투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특히, 건축이 공학기술자의 정신에 정통하고 동화될 수 있을 때 건축은 이러한 침투에 의하여 얻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구조가 우리의 시대를 특징짓고 과거의 건축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건축을 개발해내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이 그의 이론과 목표였다.¹⁶⁾ 그러나 바그너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전통의 지배하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작품에서 과거의 건축적 요소인 조각과 장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바그너의 초기 계획안은 신르네상스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면이 있지만 역사적인 평가에서 그는 역사 의식의 체계를 옹호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축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 비엔나 우체국 은행과 더불어 성 레오폴드 교회이다. 확장된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그리스 십자가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교회 건축은 형태에서 그가 추구한 명확함과 단순함을 표현하고 있다. 또 이전까지의 채광이 부족하고 어두운 곳에서 종교적 충동이 생겨난다고 믿었던 과거의 개념을 밝은 조명과 넓은 실내 공간으로 형성하여 근대적인 혁신성을 가진 교회 건축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스 십자가 형태의 평면은 하나의 커다란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그의 초기 작품인 뵘링(Währing, 1895)에 있는 교회와 카푸친 교회(Capuchin church, 1898)의 평면에서 보여진 것들이다. 구조는 큰 큐폴라가 씌어진 단일한 스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방해물로 인하여 시야를 가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바닥이 약간 들어 올려져있어서 계단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중석은 네열로 되어있으며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를 위하여 교회의 양쪽 면에 분리된 문을 설치하였고 응급실과 화장실은 지하에 계획되어 있다. 공간은 밝고 내부는 흰색으로 처리되어 있다. 콜로만 모세(Koloman Moser)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보다 많은 빛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배의 인도자는 눈부심을 피하기 위하여 측면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다. 성수반은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흐르는 샘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모자이크와 철재장식물, 샹들리에 등의 장식은 비엔나의 예술풍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천사상들이 장식되어진 동으로 된 천개는 계단을 돋보이게 하며 외부는 더 많은 천사들이 주 출입구를

16)Ludwig Hiberseimer, op. cit., p.67

특징짓는 4개의 기둥 꼭대기에 장식되어 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돛 위의 쌍둥이 탑에는 한 쌍의 성자 조각상이 있어서 이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여 장엄한 이 교회로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이 교회는 이러한 기념비적인 모습과 디테일에서의 근대적인 미, 평면에서의 실용성과 더불어 심지어는 경제성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바그너는 다양한 교회의 평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 가스탱크 모양의 디자인이 제단의 가시성과 건설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¹⁷⁾ 이것은 다른 건축가들, 특히 독일의 표현주의 교회 건축가들이 그 이후에 다시 내린 결론이었다.

세기의 전환점에서 모더니즘의 중심이었던 비엔나에서 분리파들이 전개하였던 과거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노력과 바그너의 교회 건축에서 볼 수 있었던 장식의 배제, 합리주의적인 공간, 효율적인 구조 등이 유럽의 교회 건축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것은 근대건축 뿐만 아니라 교회건축 발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것이었다.

5. 지역주의로의 전개

모더니즘의 중심에 위치한 비엔나에 재능 있는 건축가들이 모여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젊은 건축가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이 바그너의 진보적인 스튜디오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교회 건축의 디자인에서 단연 창조적인 인물은 젊은 슬로베니아인인 조셉 플레닉(Josef Plecnik)이었다. 스승인 바그너와는 달리 플레닉은 자신의 신념을 지켜 그 자신의 삶을 마치 수도승처럼 신과 건축에게 바쳤다. 그는 건축가의 역할을 성직자가 회중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비유했다.¹⁸⁾ 플레닉이 처음으로 중요한 교회 건축을 계획한 것은 1908년으로 비엔나에 있을 때였다. 성령 교회(The Church of the Holy Spirit, 1910-13)는 비엔나의 가난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교회이었는데 평면의 형태로 본다면 그다지 혁신적인 것은 아니었다. 평면은 건물의 한쪽 끝에 제단이 있는 표준 장방형으로 바실리카의 것이며 축랑은 아케이드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갤러리인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플레닉의 콘크리트 사용은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것은 건물의 재료로써 콘크리트의 중요한 초기 이용이었으며 자연스러운 마감으로써 그 잠재력을 알리는 것이었다. 입면은 그리스의 신전을 생각나게 하며 기둥의 형태는 단단한 덩어리들의 단순화로 유추될 수 있고 이 기둥들로 지지되어진 지하에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둥들의 모습은 1차 세계대전 전에 체코에서 있었던 건축에서 입체파의 전개와 그들의 지역주의 교회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그들의 원형은 독일 표현주의의 형태를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입면은 플레닉을 모델로 하였다.

17)지연순 편저, 20세기 건축, 세진사, 1993, pp.63-64
18)Edwin Heathcote, op. cit., p.18

플레닉의 다음 교회 건축은 보다 복잡한 계획이었다. 그 교회 건축은 자신의 고향 Ljubljana Siska(1925-30)에 계획한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플레닉은 고전적 언어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7> 그가 그러한 고전적 언어를 강렬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전주의나 절충주의로 불려질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제안자 중의 한 명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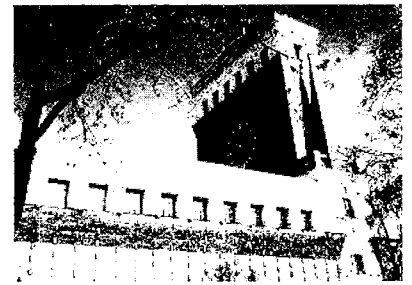


<그림 7> 조셉 플레닉, 성 프란시스 교회,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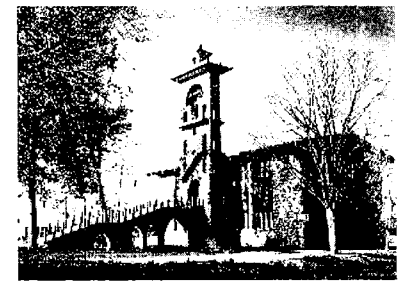
그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였는지 아니면 근대 건축 운동과의 관련이 그의 건축관을 이루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의 건축에 대한 모티브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건축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세계를 실현하려는 의지이고 둘째는 소수 민족인 슬로베니아인에게 공헌하고자 했던 의지이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와 로마, 특히 에트루스칸의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그의 디자인에 고전적 전통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1902년 플레닉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거미의 집과 같이 나는 우선 전통을 거점으로 하여 그곳에서 나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기를 원한다.” 그의 거미집은 그 시대의 어떠한 예술 경향에도 속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건축에서 슬라브족의 예술적 표현을 구체화하는

데 모든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그는 지역성을 가장 잘 정의하는 건축가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는 민족주의적이며 고전적이고 지역적인 언어로 그의 작품을 계속 추구하였고 그러한 면들을 잘 나타내는 두 교회, 즉 고전적 언어에 대한 독특하고 다른 입장에서 보면 비합리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성령 교회(Church of the Sacred Heart, Prague, 1933, 그림 8)와 길이보다는 폭이 넓은 교회의 접근에 상징성을 부여한 성 미카엘 교회(St Michael's,



<그림 8> 조셉 플레닉, 성령의 교회,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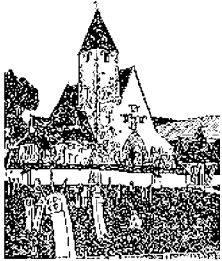


<그림 9> 조셉 플레닉, 성 미카엘 교회,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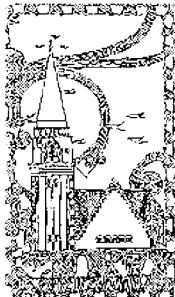
19)합리주의와 역사주의의 사이에서 살았던 휴머니스트, 플러스 8812, pp.121-129

Ljubljana, 1938, 그림 9)를 이루어 있는데 이것은 스칸디나비아의 건축과 더불어 근대적인 지역주의의 완성체로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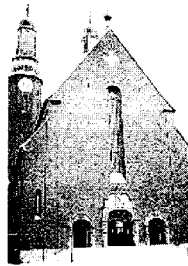
그 이후의 동구권 지역주의에 대한 전개는 Francois Hennebique의 제자인 Istvan Medgyaszay의 절단 콘크리트 구조 교회 건축으로 발전하게 되며 헝가리에서 세 명의 건축가, Odon Lechner, Karoly Kos, Aladar Arkay의 주목할만한 교회 건축들은 민족적 낭만주의로 흐르게 된다.²⁰⁾ <그림 10, 그림 11>



<그림 10> K. Kos, Zebegeny 교회,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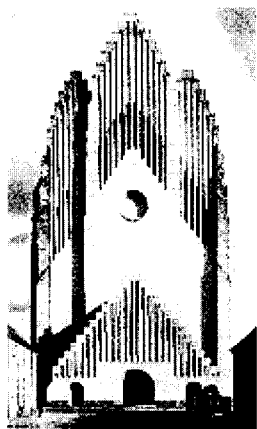


<그림 11> A. Arkay, Reformed 교회, 1912



<그림 12> I. Tengbom, Hogalid 교회, 1923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축언어를 만들려는 노력은 동구권만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세기의 전환기에 있는 대륙의 많은 건축가들의 공통적인 관심이었다. 특히 이러한 관심은 환경에 대한 다위의 반응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족적 표현에 대한 갈망은 외세에 대한 저항이 될수록 민감한 것이었다. 사아리넨을 대표로



<그림 13> P. V. 예센 클린트, 그룬트뷔 교회, 1926

하는 핀란드의 건축가들은 헝가리의 민족적 낭만주의 교회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²¹⁾, L. I. Wahlman의 Engelbrecht 교회(1904-14)와 Ivar Tengbom의 Hogalid 교회(1918-23, 그림 12)는 북유럽의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교회 건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스칸디나비아의 교회 건축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코펜하겐에 있는 쥘센 클린트(P. V. Jensen Klint)의 그룬트뷔 교회(Grundtvig Church, 1913, 그림 13)이다.²²⁾ 오르간과 같이 보이는 울퉁불

퉁하고 층이진 매스는 덴마크 전통에서 나왔는데 이 교회는 예술 공예 운동, 민족적 낭만주의,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현대의 교회 건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근대 교회건축의 단일하고 위대한 진보로 평가될 수 있다.

6. 결론

신교단주의가 만연한 19세기말의 교회 건축이 근대적인 변모를 갖추기 위해 변화되는 양상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근대 건축 운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진행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더뎠는데 그것은 산업 혁명과 사회의 변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리의 혼란과 역사주의와 합리주의 양식의 대립이라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양식에 자신들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상징을 부여하면서 실험적인 경향을 보였던 예술 공예 운동의 교회 건축가들이나 또, 과거의 장식적인 것과 완전히 단절하려는 바디너를 중심으로 한 비엔나 분리파의 노력,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었지만 자기 지역의 전통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환경에 순응하는 교회 건축함으로써 지역주의 교회 건축의 시초가 되었던 스칸디나비아와 동구권의 교회 건축가들의 계획은 그 이후로 전개되어진 표현주의와 더불어 현대 교회 건축의 이정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사라져 버린 현대 교회 건축사를 정의하는 데에 큰 의의를 둘 수가 있다.

참고문헌

1. Edwin Heathcote, Church Builders, AD Academy Editions, 1987
2. Talbot Hamlin, Forms and Functions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Vol.3,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3. David Watkin, 윤리성과 건축, 상성수 역, 태림문화사, 1991
4. Ludwig Hiberseimer, 근대 건축의 역사, 윤재희 지연순 역, 세신사, 1996
5. Peter Collins,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이정수 역, 태림문화사, 1992
6. Vittorio M. Lampugnani, 현대건축의 조형, 이호성 역, 태림문화사, 1990
7. 윤재희·지연순 편서, 미술공예운동과 건축, 세신사, 1995
8. 지연순 편서, 20세기 건축, 세신사, 1993
9. 조경수, 현대 한국교회 건축세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1988
10. 합리주의와 역사주의 사이에서 살았던 휴머니스트, 플러스 8812
11. 김정신, 스칸디나비아의 교회건축, 건축과 환경 9201
12. 多田和秀 외 2명, ハソガリ- 民族の建築様式, 建築の技術, 1996. 9

<접수 : 1999. 7. 31>

20) 多田和秀 외 2명, ハソガリ- 民族の建築様式, 建築の技術, 1996. 9, pp.86-89

21) 사실 사아리넨은 그 이후에 교회건축에 투각을 나타냈다.

22) 김정신, 스칸디나비아의 교회 건축, 건축과 환경 9201, pp.124-125